



뽕이오, 뽕

김리리 글 | 오정택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권장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활동1 이야기 순서대로 간추려 쓰기

이야기가 길든 짧은 모든 글에는 처음, 가운데, 끝이 있어요.

읽은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아요.



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②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③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순덕이는 삼신할머니가 보낸 생쥐 덕분에

막혔던 콧구멍이 뽕 뚫려 동물의 말까지 알아들어요.

순덕이는 벌, 지렁이, 청개구리, 토끼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청개구리와 토끼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책 내용을 떠올려 말풍선을 채워 주세요. 답답한 마음을 뽕! 뚫어 주세요.



고 녀석들 맨날
말썽만 피우더니
엄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고 있는 것이구먼.

무슨 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야.



토끼가
게으름뱅이에 잠꾸러기라서
거북이랑 경주할 때
졌다든 게 참말이여?

사람들은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내가 진실을 알려 줄게.



순덕이처럼 이야기꾼이 되어 보자

“언니, 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 줘.”

순덕이는 동생 순미를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교실에 날아든 벌,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송충이, 억울한 개구리, 꾀를 낸 토끼……

순덕이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누구라도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순덕이처럼 이야기꾼이 되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꼭 ‘옛날에’를 붙여서 말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옛날에,

